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수문천 수문천녀 수문천

〈守門天〉 〈守門天女〉 〈守門天〉



수문천은 동문의 외측에 위치하고, 외적을 물리쳐 해산시키는 원력으로 동문의 좌측을 수문천녀와 함께 수호한다.

형상: 몸은 살색이고, 사천왕형(四天王形)이고 천의를 걸치고. 우수에는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좌수에는 혜검을 가지고 있으며, 좌측무릎을 세우고 자리에 앉아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㉓ 함께하는 도반

정진하는 장애우의 좋은 도반 되어주길…

우리는 외형적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고 있지만 "불성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거나 받은 적도 있다. 어찌 불성에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수 있을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불자의 기본 생명과 같음은 장애인에게도 똑같다. 그렇기에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믿고 의지하며 신행과 수행도 삼보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함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스스로 수행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약속이며 다짐일 것이다. 보리수아래 부처님 품 안에서 장애불자들도 삼보에 귀의하는 맘은 똑같을 것이다.

경전에 나오는 장애인 수행자는 십대제자 아나율과 자신의 장애를 벗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특, 척추장애인으로 자신이 모시는 왕비에게 바깥세상 법회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웃다라 등은 대표적 인물이다. 경전에서는 이들이 최고의 수행경지에 도달했거나 큰 공덕을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다.

경전에 소개된 이들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1년 동안 보리수아래 부처님 품안에서 소개했던 장애불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화계사 불교학생회 지도를 하고 있는 홍현승, 날마다 108배 수행과 법화경 사경을 하는 김영관,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원, 피아니스트 · 국악 · 작곡가로 성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심장장애인 이상복, 보치아 국가대표선수 김준엽, 시인과 직장인으로 성장한 뇌병변장애인 성인제, 시각장애인단체를 이끌고 있는 미영순, 보기드문 효자 이경남, 인식개선강사 성희철, 한달에 한 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방생하는 스물여섯살 이재훈, 시나리오작가 우창수, 중증장애에도 동료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도왔던 정상석 등등 참 여법한 이름들이다.

'삼귀의', 장애인에게도 같은 의미
불성에 장애 · 비장애 있을 수 없어



2016년 보리수아래 낙산사템플스테이에 동행해주셨던 중앙승가대 스님들.

이들의 수행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서 깨달음을 얻어 참다운 불자가 되고자 하는 원은 같을 것이다. 시대가 다를 뿐 아나율과 주리반특, 웃다라의 수행과 같을 것이다.

현재의 장애불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신행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나율과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부처님의 혜안과 살핌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스님들께서 바탕을 만들어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보리수아래를 결성하게 해주신 지현 스님, 바른불법공부를 하게 하시고 조용히 지켜보시다 넓은 혜안으로 살펴주시는 송강 스님, 어느 때든 달려와 주시는 해성 스님과 도륜 스님, 장애불자들이 활동을 넓혀 갈수록 곳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는 스님들이 참 많았다. 아마도 모든 스님께서 장애불자들과 인연이 닿는다면 부처님의 혜안과 살핌으로 장애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애불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사찰의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흥천사 전법회관 내 법당들, 도심건물에 있는 광림사 법당, 국제선센터, 부산 홍법사 원형법당 등은 휠체어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된 사찰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은 불편하고 불친절하다는 인식 등의 부정적인 불교에 대한 편견들을 바꾸어 가야할 시기가 된 듯도 하다. 이는 스님, 장애불자, 비장애불자, 각 종파의 종단사무국에서 함께 구심점을 찾아 노력해야겠다. 어느 지역의 어느 사찰은 장애인이 참배하기 편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홉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각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경전을 잘 살펴보면 경전 속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기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수행해 깨달음을 이룬 인욕과 지혜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처님은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혜안과 사랑으로 이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셨다. 장애인도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장애인들도 수행력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침 그대로 보여주셨다.

〈금강경〉에는 "불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是法平等 無有高下)"고 했다.

평등과 자비사상의 불교다.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장애불자들에게 불자들이 좋은 도반으로 동행이 되어주길 바란다. 또한 장애불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신행생활과 포교 활동은 방법을 찾고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기다. 장애불자들이 언제든 모여서로 소통하고 불자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서원을 세우며 1년간의 연재를 마친다. 연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현대불교신문에 감사드린다. 〈끝〉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